내했이전남· 경기보시대



주간 전남 VOL. 253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0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겨울철 사료작물, 서둘러 씨앗 뿌려야
정책동향 및 홍보 태풍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가을 수확기 농기계 빌려드려요'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전남산 고품질 홍차, 싱가폴 차시장에 수출 개시



목차 및 요약

1. 우신 일씨경모 5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에는 대체고 맑겠으나, 후반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8~16도, 최고기온: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낯 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6
▶ 채소 : (예보) 뿌리혹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등
▶ 과수작물 : (예보) 과수화상병
3. 농산물 관측정보 7
▶ 토마토, 방울토마토(대추형)
▶ 풋고추(일반), 오이(취청)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전남산 고품질 홍차, 싱가폴 茶시장에 수출 개시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6				
▶ "트리티케일 재배로 추위에도 질 좋은 사료 생산해요"				
▶ 겨울철 사료작물, 서둘러 씨앗 뿌려야				
▶ "온실 재배 수박, 거름은 표준 사용량에 맟게 주세요"				
▶ '양파 어린 모종' 병해충, 습기 피해 주의				
▶ 인공기상 장치로 배추 고온 피해 예측 모형 개발				
7.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1				
▶ 태풍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 전남도, 2020년 귀농어귀촌 지원 전국 최다				
▶ 전남농기원, 딸기 수출확대 유관기관 공동사업단 발족				
▶ 전남농기원, 양파 품종개발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				
▶ 전남농기원, 전국 최초 찿아가는 농식품 홍보 서포터즈 발족				
▶ 농촌진흥청, 중만생 최고 품질 벼 '예찬' 개발				
▶ "한국의 농업기술, 미얀마에도 심을래요"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품목별 도소매 정보

12

▶'감기, 잘 가~'약이 되는 버섯차로 면역력 키워요			
▶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국비 전국 최다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1			
▶ 여수시, '가을 수확기 농기계 빌려드려요'			
▶ 나주시, 돌발해충 방제 필수 한 해 농사 마무리 깔끔하게			
▶ 곡성군, 미생물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꿈꾼다			
▶ 곡성군, 토란은 맛있다 팜파티 성황리에 종료			
▶ 화순군, 친환경 농업 확대 위한 BM활성수 공급			
▶ 강진군, 새청무(전남6호) 대표품종으로 집중 육성			
▶ 무안군,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 매입 장려금 지원			
▶ 무안군,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 지원			
▶ 함평군, 돌머리 노을정원 팜마켓 성황 속 마무리			
9. 해외 농업정보 41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10.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2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초경제연구위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7.1℃ (평년대비 0.1℃ 낮음)

• 최고기온 : 22.9℃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11.3℃ (평년대비 0.9℃ 낮음)

• 강 수 량 : 1.9mm

목포시

• 평균기온 : 18.4℃ (평년대비 0.4℃ 높음)

• 최고기온 : 22.0℃ (평년대비 1.4℃ 낮음)

• 최저기온 : 14.7℃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2.1mm

• 평균기온 : 19.0℃ (평년대비 0.3℃ 높음)

여수시

• 최고기온 : 23.0℃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15.0℃ (평년대비 0.6℃ 낮음)

• 강 수 량 : 2.3mm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붉은곰팡이병(종자소독)
		해충	· 열대거세미나방
채소	· 예 보	野	· 뿌리혹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 ==	해충	· 파밤나방, 목화바둑명나방, 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잎굴파리, 작은뿌리파리
		野	· 과수화상병
과수작물	・예보	해충	· 노린재류, 꼬마배나무이,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 출하 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10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지역의 경우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증가하였으나, 작목 전환과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생육 지연으로 출하가 미뤄지면서 출하면적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단수는 가을장마와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습한 기상이 지속되면서 병해충(총채벌레, 온실가루이, 궤양병, 역병 등) 및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월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10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5,8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천~3만1천 원으로 전망된다.
- 일반토마토의 품위 저하, 소비대체 품목(대추형 방울토마토,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의 가격 약세에 따른 소비 둔화로 출하량 증가폭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울토마토(대추형)

♥ 출하 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10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호남지역에서는 전년 출하기 시세 상승으로 딸기, 토마토(일반·원형 방울) 등에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음성·충주에서는 최근 가격하락과 생육 상황 악화로 재배포기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월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10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원)보다 낮은 상품 3kg 상자에 1만 5천~1만 8천 원으로 전망된다.



풋고추(일반)

♥ 출하 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12% 감소 전망

10월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에서 최근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고,
 강원지역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종료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월 단수는 강원지역에서 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전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12%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10월 가격 전년보다 상승 전망

• 10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만5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6천~4만 1천 원으로 전망된다.



오이(취청)

♥ 출하 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2% 감소 전망

- 10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충남 천안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단수는 일조량 감소와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나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 적을 전망이다.

♥ 가격 전망: 10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만5,900원)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8천~2만 1천 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고품질 홍차, 싱가폴 茶시장에 수출 개시

4

- 보성홍차 10농가, "코리안블랙퍼스트 티" 상표로 수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싱가폴차(茶)시장에 전남산 홍차 수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도 농기원은 국내 차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 신품종이용 저비용 홍차제조기술 개발로 노동력과 시간 50%절감, 부가가치 2.5배 향상으로 차농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9월 30일 홍차 선도농가와 함께 차산업연구소에서 금년에 생산한 홍차를 싱가폴 차시장에 진출하고자 수출행사를 가졌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보성제다 서상권(42세) 부장은 그동안 차산업연구소와 홍차생산 10농가 공동으로 홍차 제조기술 교육을 수료한 후"코리안블랙퍼스트 티"상표로 호주 40kg를 보냈는데, 이후 소비자 반응이 좋아 싱가폴까지 확대되어 비록 시작이지만 300kg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전남산 홍차는 아직 세계 차(茶)시장에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최고 품질의 유기농 홍차로 인정받는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0. 07 .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	20kg	46,000	46,400	J 0.8
ĺ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55	46,380	38,127	1 20.6

콩(백태)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7	35kg	197,200	197,800	1 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80,200	154,467	1 27.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등락 률 (%)		
7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27,800	28,600	↓ 1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000	32,550	24,350	14.2

감자(수미)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0kg	20,400	20,800	↓ 5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450	45,150	30,890	4 34.0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등 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18,200	20,600	1 9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50	9,200	9,260	1 96.5

양배추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8kg	6,800	4,600	3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50	10,250	8,703	1 21.9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0개	18,500	19,000	1 2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375	23,750	19,158	3.4

애호박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0개	16,800	16,400	1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600	15,500	13,797	1 21.8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30kg	430,000	430,000	3 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0,000	620,800	490,667	1 2.4

풋고추



_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51,600	51,000	1 2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58,300	40,550	38,507	1 34.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 률 (%)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20,000	120,000	\$ 25.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 률 (%)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0kg	10,100	10,200	3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750	14,800	19,600	4 8.5

당근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0kg	44,800	38,200	3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350	66,700	53,770	↓ 16.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kg	2,040	1,860	4 2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90	2,695	2,101	1 2.9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5kg	31,400	28,800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950	31,100	26,637	1 7.9

수박



_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개	18,200	17,000	9 .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150	20,150	11,967	1 52.1	

토마토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33,400	34,000	4 2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800	46,700	31,537	1 5.9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등락률(%)		
-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5kg	27,400	22,800	3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050	39,200	23,473	1 16.7

특용작물

사과(홍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28,800	28,600	1 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600	34,800	33,447	1 3.9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30kg	499,000	499,600	1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650	498,400	516,567	3 .4

배(신고)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5kg	33,400	33,200	1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000	38,800	38,753	1 3.8

느타리버섯



_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kg	14,600	15,000	1 7.7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50	13,550	13,007	12.2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 률 (%)	
	판매 단위	단위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kg	41,600	41,600	1 .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2,000	42,827	1 2.9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2kg	8,200	8,200	1 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750	7,500	8,067	1 .6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0g	8,822	8,860	1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40	8,477	7,838	1 2.6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 률 (%)
1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00g	2,156	2,177	1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16	2,032	2,011	1 7.2

닭고기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 률 (%)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kg	5,129	5,144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89	5,146	5,125	1 0.1

계란(특란)



전국 평균	·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30개	5,424	5,349	1 .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15	5,496	5,683	4 .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07)	1주일전 (10/01)	전년대비
1L	2,615	2,615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8	2,620	2,548	1 2.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0. 07.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н	금주	전주	41373	등락	률(%)
	구분	가격	가격	1년전	전주대비	전년대비
,	암	5,681	5,590	5,792	1 .6	1 .9
	거세	6,618	6,810	6,680	1 2.8	♣ 0.9

한우송아지(천원/6~7월)



¬н	금주	전주	41373	등락	률(%)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89	3,251	3,203	1 .2	1 2.7
수	4,108	4,024	3,957	1 2.1	1 3.8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주가격 전주가격		1	년전
3,231	3,354		3,784			
	전주대비					
등락률	전주	대비	전년	크대비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국	우가격	1	년전
399	3	398	2	259
드라르	전국	주대비	전년	크대비
등락률	1	0.3	1	54.1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5	417	356
Care	전주대비	전년대비
등락률	• 14.9	9 👃 0.3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	가격	1կ	년전
1,346	1,	296	1,	323
등락률(%)	전주	드대비	전년	[대비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	년전
1,143	1,085		1,	141
	전국	드냅비	전년	크대비
등락률	1	5.3	1	0.2

오리(원/kg)

	à	
	Ÿ	
4		
	and a	

금	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	2,400	2,400	2,333
_=	C315(0/)	전주대비	전년대비
<u>o</u> ,	락 률 (%)	0.0	1 2.9

^{*}자료 출처: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트리티케일 재배로 추위에도 질 좋은 사료 생산해요"

- 영하 10℃ 밑돌아도 잘 자라... 파종 시기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이 특히 추운 지역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트리티케일을 재배하면 품질 좋은 풀사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리티케일은 겨울작물인 보리나 밀에 비해 추위견딤성이 뛰어나다.
- 겨울철 기온이 영하 10℃를 밑도는 경기, 강원, 충북에서도 안전하게 겨울나기가 가능하다.
-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생산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제때 씨를 뿌리는 것이 좋다. 늦게 파종했다면 20%가량 양을 늘리고 흙은 조금 깊게 덮어주면 도움이 된다.
- 지역별 파종 시기는 경기·강원·충북은 10월 상순~중순, 충남·경북 북부는 10월 중순~하순, 경북 남부·전북·전남은 10월 하순~11월 상순, 제주는 11월 상순이 알맞다.
- 이삭이 나올 무렵부터 낟알이 찰 때까지 수확 시기에 따라 다양한 품질의 풀사료를 얻을 수 있다.
- 이삭이 나올 때 수확하면 식물체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단백질 함량이 12~15%까지 높다. 이삭이 나고 3~4주 후에는 조직이 질겨지지만 낟알이 달려있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풀사료를 수확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6

▼ 겨울철 사료작물, 서둘러 씨앗 뿌려야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시기 놓치면 생산량 50% 넘게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를 안전하게 재배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 IRG를 늦게 파종하면 월동 전 생육기간이 짧아 겨울철 추위로 피해를 입기 쉽고, 봄철 서릿발과 가뭄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
- 파종이 10일 이상 늦어지면 생산량이 50% 넘게 줄어든다. 파종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파종량을 30~50% 많이 하는 것이 좋다.
- 파종 방법은 줄뿌림, 흩어뿌림, 입모중 파종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파종량과 관리 기술이 다르다.
- 1헥타르(ha)당 파종량은 줄뿌림 30kg, 흩어뿌림 40kg 정도이며, 줄뿌림과 흩어뿌림은 밭갈기(로터리) 작업 후 종자를 뿌리고 반드시 눌러줘야(진압) 한다.
- 입모중 파종은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논에 수분이 충분한지 확인 후, 1ha당 60kg정도 파종한다. 파종 후 7일이 지나면 싹이 난다. 이때부터 벼를 수확해도 되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벼 수확 후 볏짚을 빨리 걷어내고 밑거름을 줘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겨울나기 전 생육 기간에 땅 온도를 높여주고 겨울철 습기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IRG의 1헥타르(ha)당 거름(시비)량은 파종할 때 밑거름으로 복합비료(21-17-17) 9포, 봄철 재생기(남부 2월 하순, 중부 3월 상순)에 요소비료 11포 정도다. 퇴비나 액비를 시용할 때는 화학비료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 "온실 재배 수박, 거름은 표준 사용량에 맞게 주세요"

- 10a당 1,500~2,000kg... 토양 검정 ·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박을 재배지로 옮겨 심는 아주심기1)에 알맞은 퇴비량을 제시하고, 토양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수박은 과채류(과일채소류)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2017년 재배 면적은 1만 2,661헥타르(ha), 생산량은 50만 6,471톤이었다.
 특히, 노지보다 시설 재배 면적(9,935ha)이 4배가량 많았다.
- 올해 초 수박 가격이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달에 아주심기 하는 수박 면적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 가을철 시설 수박 재배는 토양 요구량에 맞춰 퇴비를 줘야 한다.
- 수박 재배에 알맞은 퇴비량은 10아르(a)에 1,500~2,000kg으로, 밑거름으로 한 번에 줘야 한다.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흙에 염류가 쌓여, 생육 부진, 수량 감소 등 연작(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토양에 냄새 없이 잘 발효한 퇴비를 준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가축 퇴비를 주면 묘의 뿌리 내리는 비율(활착률)이 떨어지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 작물에 급성 시듦이 나타난다.
- 토양 관리에서도 수박은 이어지으면 생육이 나빠지므로(기지현상) 재배 후 5~7년간은 쉬어야(휴작) 한다.
-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토질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다.

♥ '양파 어린 모종' 병해충, 습기 피해 주의

- 큰 일교차에 잘록병 · 잎마름병 늘어... 초기 방제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교차가 크고 습한 환경에서 양파 모종에 병과 습해가 확산하기 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생육 상태가 뒤처지는 어린 모종이나 지난해와 같은 곳에 이어짓기한 경우 병이나 습해가 더 잘 발생한다.
- 양파잘록병에 걸리면 땅과 맞닿은 모종 줄기가 잘록해지면서 잎이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게 된다.
- 양파잎마름병의 경우, 모종의 잎 끝에 난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잎의 끝이 쭈글쭈글해지며 마른다. 잘록병과 달리 양파의 전 생육기에 걸쳐 피해가 이어지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 아주심기 후 초기까지는 양파 뿌리를 파먹는 고자리파리류, 뿌리에 해를 입히는 뿌리응애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 양파잘록병과 양파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용 살균제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 고자리파리류와 뿌리응애 피해를 입었던 농가는 아주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리거나, 아주심기 후 방제용 살충제로 방제한다.
- 병뿐 아니라 잦은 비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습해를 주의해야 한다.
 습해를 본 양파 모종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뿌리 부위가 갈색으로 변해 말라 죽는다. 두둑이 평평하지 못하거나 고랑을 깊게 파지 않았을 경우와 배수가 좋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 습해를 줄이려면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깊게 파서 두둑을 높여 관리한다.

♥️ 인공기상 장치로 배추 고온 피해 예측 모형 개발

- 28℃에서 4일 지속되면 배추 무게 22%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안정적인 배추 생산을 위해 최첨단 인공기상 장치를 활용한 고온 피해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 최근 우리나라는 고랭지의 이상기상으로 여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여름 배추가 속이 차는 시기에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수량이 줄며 배추 판매 가격도 오른다. 올해는 재배 상황이 좋았지만,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산지의 작황이 나빠 8월 여름 배추 가격이 과거 5년 대비 43%나 올랐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인공기상 장치에서 이상고온 처리 실험을 통해 여름 배추 고온 피해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 연구진은 이 시설에 배추를 아주심기한 뒤, 낮과 밤의 온도를 각각 25℃와 22℃, 30℃와 27℃, 35℃와 31℃로 설정해 40일~43일간 자라는 상태를 관찰했다.
- 그 결과, 평균 기온이 28℃인 날씨가 4일간 지속되면 배추 무게가 22%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이번 모형을 배추 안정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고온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책동향 및 홍보안내



태풍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벼 낟알이 젖은 상태가 지속되어 싹이 트는 것으로 식용으로 부적합), 흑·백수(강풍 등으로 생육에 장애가 발생,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10월21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현재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10.8)하고 있으며,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 피해립(손상된 낟알을 말함) 등 피해 상황에 따라 별도 규격을 신설(10.16) 할 계획이다.
- 피해 벼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며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 전남도, 적법화 추진율 97.5%로 전국 1위 -
-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관리 대상 4천693농가 중 97.5%(전국 88.9%)인 4천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 세부 추진 상황은 인허가 완료 2천329호(49.6%), 인허가 중 491호(10.5%), 설계 중 1천756호(37.4%), 폐업 예정 117호(2.5%)다.
- 시군별 추진 실적은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시군이 100%로 가장 높고, 영암 99.8%, 보성 99.7%, 고흥 99.1%, 곡성 98.8% 순이다.
- 각 시군에서는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접수 등 적극 진행 중인 2천247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시군 및 축협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9월 27일까지 21개 시군 지원협의체(축협 포함)를 구성하고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 시군 지원협의체는 10월 14일부터 1개월간 농가별 대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농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정부의 제도개선과제 3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건폐율 확대 등이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2020년 귀농어귀촌 지원 전국 최다

- 총 사업비 33억 4천만 원 확보...귀농귀촌 활성화 밑거름 -
-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3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9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지원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 귀농인 집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빈 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해 제공한다. 지금까지 114개동을 조성했다.
 2020년 14개동에 4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확대로 농촌 고령화와 인력 감소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는 또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사업에 전년보다 249억 원을 증액한 전국 최고의 816억 원을 배정받아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 정착에 일조하게 됐다.
- 지난해 전국적인 귀농어·귀촌 감소(△1.9%)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은 유일하게 귀농·귀촌·귀어가구 모두 증가(1.7%)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전체의 38.6%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딸기 수출확대 유관기관 공동사업단 발족

- 농업기술원, 농협, aT,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딸기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전남 딸기의 수출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2일 밝혔다.
- 공동사업단은 전남 딸기수출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 각 기관별 주요 역할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출 신품종 모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출 딸기 생산자 조직화, 농협중앙회와 aT는 수출시장 개척, 판촉행사 및 동향정보 제공, NH무역(호남사무소)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개배한 딸기를 수출한다.
- 아울러 공동사업단은 분기별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기관 간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도 농기원은 올해 신품종 딸기(메리퀸)를 활용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육묘장 4개소를 구축하였고,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메리퀸, 죽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봉환 기술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딸기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출범"을 계기로"전남 딸기가 세계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 양파 품종개발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

- 양파종자, 일본을 넘어 세계시장 공략 발판 마련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양파 신품종 개발과 종자생산, 유통을 위해 국내 최대 양파 종자회사 ㈜제농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4일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파 유전자원 공유와 신품종 개발, 종자 생산과 유통 등 전남을 양파 종자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동안 전남농기원과 ㈜제농은 우량 유전자원 공유와 품종개발에 공동 노력한 결과 일본산 품종에 비해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이 높은 2종의 품종을 개발, 품종보호출원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판매할 계획이다.
- 김성일 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품종개발 작목확대와 종자 전문생산 단지육성, 수출 기반을 마련해 미래 농산업의 핵심소재로 종자산업을 키워 가자"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한편, ㈜제농 김태형 대표이사는 "양파는 글로벌 식재료로 대한민국 종자시장을 넘어 세계 수출시장에 도전, K-seed 열풍의 파도를 일으켜 보자"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전남도는 앞으로도 종자산업을 블루이코노미 비전과 연계하여 민관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파 육종·증식·판매 허브를 구축하여 종자로 돈 버는 농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농기원, 전국 최초 찾아가는 농식품 홍보 서포터즈 발족

- 중국 유학생 20명 농가 현장방문 취재 중국 SNS 홍보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온라인시장 (타오바이 등)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는 전남 농식품 26개 상품과 농장을 홍보하기 위해「찿아가는 농식품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서포터즈는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영상과 컨텐츠를 제작 중국 SNS(웨이보등)에 등록해 홍보할 계획이다.
- 서포터즈 운영은 수출업무 협약업체인 ㈜JHE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지난 10월 5일 고흥군 유자가공업체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진행하였다.
- 전남농기원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틈새시장인 온라인 시장에 입점시키고 있으며, 중국 소비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농식품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지역특화식품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화권 수출확대 유자 가공제품 개발", "수출확대 현장애로기술 해결 종합기술 지원"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중만생 최고 품질 벼 '예찬' 개발

- 밥맛·도정 특성·재배 안정성 좋아... 충남 이남·남서 해안 적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밥맛 좋은 최고품질 벼 '예찬'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예찬' 품종은 '현품('12년 육성)1)'이후 처음 육성한 중만생종이며, 충남이남 평야지와 남서 해안 지역에 재배하기에 알맞다.
-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5.6%로 낮으며, 식미검정에서 밥맛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남부지역에서 이삭 패는 시기는 8월 14일이다. 키는 66cm로 쓰러짐에 강하다.
-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a),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10a당 수량은 587kg으로 대비 품종보다 4% 높다.
- 등숙율은 92.4%로, 제현율(현미 산출률) 82.1%, 도정율 74.6%, 완전미 도정수율이 71.0%로 남평벼보다 도정 특성이 좋다.
- 벼 '예찬'은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 시행 중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생산 단계를 거쳐 2020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작물육종과장은 "벼 '예찬' 품종 보급으로 농업인은 재배가 쉬워지고, 소비자는 맛있는 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도정업자는 경제성이 높은 벼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업기술, 미얀마에도 심을래요"

- 농촌진흥청 연수 위해 현지 연구원 · 농업인 15명 찾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얀마 농업연구청 연구원과 농업인 지도자 등 모두 15명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 기술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미얀마의 마을 지도자와 차세대 농업인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농기계 관련 업체를 방문했다.
- 그동안 KOPIA 미얀마 센터는 미얀마 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부터 우량종자 생산단지 200ha를 조성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일반 종자 대비 평균 125%의 소득증대 성과를 거뒀다.
-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참여 농업인들은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좀 더 배우기 위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연수기회를 청에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선진농업기술 연수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벼를 주로 재배하는 미얀마 농업인들은 대부분 5~10ha 규모의 중소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를 통한 생력재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연수에 참가한 예민탄 씨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미얀마 농업인들도 앞선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으며, 부농을 꿈꿀 수 있게 됐다."라며,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얀마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감기. 잘 가~' 약이 되는 버섯차로 면역력 키워요

- 동충하초는 피로 해소 돕고 상황은 항산화 활성 뛰어나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면역 체계 강화를 돕는 동충하초, 영지, 상황 등 약용버섯 차를 추천했다.
- 동충하초는 감기 등 상기도 감염1)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 기능성 지표 물질인 코디세핀2)이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억제, 피로 해소를 돕는다.
- 영지에는 고분자 다당류인 베타글루칸(β-glucan)이 들어 있어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며, 항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상황도 면역 기능을 높인다. 천연 항암제라 할 만큼 항암 효능이 뛰어나며,
 항산화 활성이 높아 노화를 막는다는 보고도 있다.
- 버섯을 차로 마시려면 동충하초 5g, 영지 100g, 상황 35g에 물을 각각
 4L, 1.5L, 1.5L 넣고 20분~30분 동안 끓인다. 재탕(2번), 삼탕(3번) 끓여
 마셔도 좋다.
- 끓이고 남은 동충하초는 잘게 잘라 죽이나 밥에 넣어 활용한다. 상황과 영지는 말린 뒤 천에 싸서 입욕제로 쓰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버섯과장은 "약용버섯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에 관한 유용성분이 들어 있어 차로 즐기면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국비 전국 최다

- 농식품부 공모 18곳 중 6개소 선정...지속적 친환경농업 입지 강화 -
-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20년 공모사업에 전국 18개소 가운데 6개소가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 예산은 13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41억 원으로, 전라남도의 확보량은 15억 원(36%)이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과 참여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곡성군 전남유기농인삼(주), 화순군 영글어농장, 강진군 평산 영농조합법인, 고흥군 팔영농협, 영암군 농업회사법인 새영암, 함평군 손불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다. 농경지 10ha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상의 사업구역 내에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10% 이상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들이다.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를 20억 한도까지 지원하게 된다.
- 9월 말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 면적은 전국의 55%, 유기농은 52%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가을 수확기 농기계 빌려드려요'

- 트랙터, 콤바인 등...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일에도 임대 -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한다고4일 밝혔다.
- 시는 연말까지 임대사업을 지속하며,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휴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을 연다.
-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고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 농기계 임대료는 5천 원부터 23만 원까지 기종에 따라 다르다.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는 무상으로 운송해주며, 농기계 조작과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전에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659-4466)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나주시, 돌발해충 방제 필수 한 해 농사 마무리 깔끔하게

- 나주시,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 성충기 방제 철저 당부
- 9.30.~10.4. 돌발해충 방제 중점 기간 지정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9~10월 과수 및 특용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및 내년도 해충 발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산란기를 맞은 성충기 돌발해충에 대한 집중방제를 농가에 당부했다.
-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매년 1~2회 발생하는 돌발해충은 5월 월동난이 부화한 후, 약령기를 거쳐 8~9월에 성충으로 성장해 내년을 위한 산란을 시작한다.
- 돌발해충들은 어린 가지의 나무껍질을 벗겨 그 속에 알을 낳아 월동을 하는데, 산란된 가지는 이듬해 위축 또는 말라죽기 때문에 성충 산란기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 특히, 성충은 인근 산림지역으로 이동해 활동하다가 월동난을 낳기 위해 다시 과원으로 날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야산 등 인근에 산림지역이 있는 과원에서는 적극적인 방제가 중요하다.
- 나주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돌발해충 방제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포도, 복숭아, 배, 블루베리, 아로니아, 감 등 지역 주요 과수농가의 개별방제를 독려하고, 마을방송및 SMS 등을 통해 방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 나주시



곡성군, 미생물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꿈꾼다

- 농업미생물 보급 최근 4년 동안 3배 넘게 확대 -
- 보급량 더욱 늘리기 위해 내년 배양시설 추가 증설 예정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최근 4년 동안 농업용 미생물 보급을 3배 이상 확대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농업 및 축산용으로 유용한 우수한 균주를 직접 배양해 보급해오고 있다. 연차를 거듭할수록 농업현장에서 미생물의 효과를 체감한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2015년 63.5톤이었던 미생물 보급량이 작년에는 190여 톤에 육박하더니 2019년에는 210톤을 넘길 전망이다.
- 현대산업에서 미생물은 식품, 의약, 환경,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도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작물 생육, 품질 향상, 병해 예방, 축사 악취 저감 등에 효과가 있다.
- 영양소들이 유기물의 형태로 순환되는 생태계에서 미생물은 유기물의 마지막 분해 과정에서 '분해자' 역할을 한다. 즉 농작물이 영양소를 이용하려면 미생물들이 분해한 작은 크기의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농작물의 품질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적정량의 유기물과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분해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 미생물이 '유용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생물도 생물이기에 자연상태에서는 다른 생물들과 경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었다. 콩과식물의 뿌리혹박테리아처럼 공생식물에 영양원을 공급해 공생할 수도 있고, 여타의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생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그런데 최근 우리 농촌은 계속되는 연작, 무분별한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토양 미생물 생태계가 불균형해져 이러한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식물체에 미치는 효과, 증식 속도, 환경 적응력을 고려해 농업에 적합한 미생물을 선발하고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 공급하고 있다.
- 곡성군 농업미생물의 특별한 점은 곡성 지역의 산야에서 채취한 토착미생물을 쌀겨에 배양하여 공급한다는 점이다. 수천년 동안 곡성에서 살아남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곡성이라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만큼 지역의 기후, 토질, 수목 등에 알맞게 토양을 개량할 수 있다.
- 미생물의 효과를 체감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미생물 보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기반 장비 운영과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2020년에는 국비를 확보해 배양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배양시설이 증설되면 현재 200톤 가량인 보급량을 400톤까지 늘릴 수 있어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토란은 맛있다 팜파티 성황리에 종료

- 지난 28일 전남 곡성군에서 개최된 디저트 팜파티 '토란은 맛있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이번 '토란은 맛있다' 팜파티는 곡성을 방문한 관광객에도 토란 및 토란가공품을 알리고자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진행됐다. 토란파이 가공농가 가랑드, 곡성다움, 자매가 3곳이 주최로 진행됐으며, 각 농가가 초청한 감사 고객과 기차마을 관광객 등 10대부터 60대까지 15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팜파티를 찾았다.
- 팜파티에 참가자들은 토란파이, 토란조청, 토란쿠키, 토란만주 등 토란 활용가공품 10여 종을 시식하고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일부참가자들은 선착순 50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들링 체험'을 통해 그날의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참가자 A씨는 "10여 가지 토란가공품을 보고 토란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수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온 아이들도 토란의 맛에 친숙해져서 앞으로 토란상품을 더 자주 주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참여 농가 및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 2회의 팜파티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친환경 농업 확대 위한 BM활성수 공급

- 연간 500t 규모 생산...작물 생장 촉진·축사 환경 개선 효과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BM활성수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 군은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유용 미생물 6종 공급에 이어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해당 시설은 하루 2t 생산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t을 생산할 수 있어 화순군은 BM활성수를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Bacteria)과 광물질(Mineral)이 물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강력해진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게 한다.
- 효소와 호르몬, 유기산, 성장촉진물질 등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 토양 환경 개선과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 생산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BM활성수를 살포하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 번식을 억제해 축사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BM활성수 공급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



강진군, 새청무(전남6호) 대표품종으로 집중 육성

- 강진군이 전남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육성기간을 거쳐 2018년 품종보호권등록을 마친 새청무(전남6호)를 전남 최초로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선정하고,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강진군 통합RPC)와 1,600ha를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동안 경기도는 추청, 강원도는 오대, 전북은 신동진, 충청도는 삼광 이라는 품종들이 각도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유독 전남에는 이렇다 할 대표 품종이 없었다. 새청무는 밥맛이 우수하고 전남에 재배안정성이 적합하여 도정수율이 우수함은 물론, 도복 등에도 강하여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하는 품종이다.
- 강진군에서는 농가에서 고품질 쌀로 일부 재배하고 있는'히도메보레'나 '고시히카리'등 일본품종 재배근절을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9년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새청무벼를 2019년 1,600ha에서 2020년에는 3,000ha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향후 강진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가칭:탐진강 찰진쌀 새청무)로 출하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강진군



무안군,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 매입 장려금 지원

-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인증 벼에 대한 매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은 무농약 인증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 1,400여 ha에 대한 인증 상향유도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관내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매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를 매입하는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일반벼 보다 포대당(40kg) 10,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시 5,000원씩의 장려금을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로확충은 물론 생산농가경영안정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 군은 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3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 한편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벼 인증면적은 1,606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00여 ha의 무농약 인증면적에 대한 유기인증으로의 상향 인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출처 : 무안군



무안군,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 지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하였다.
- 군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일 일로농협 주관으로 지역농민과 도의원, 군 의원, 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당사업으로 벼 이앙에서부터 수확 및 건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고령농과 부녀농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져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주체인 일로농협은 준공식날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절감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안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올해 무안군은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농협에 지원하고, 농업법인 및 단체에 농업용 방제 드론 20대, 지게차 30대,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 현장에서 군민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군정에 반영코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살고 싶은 농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돌머리 노을정원 팜마켓 성황 속 마무리

-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린 '돌머리 노을정원 팜마켓'이 많은 인파 속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회 돌머리 노을정원 팜마켓이 개최됐다.
- '꽃이 피니 그대가 오네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가을에 걸맞은 각종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수공예 플리마켓 등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 특히 함평 나비쌀과 레드마운틴 등 지역 대표 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3일간 총 1천만 원 가량의 판매매출을 올렸다.
- 또 새로 조성된 핑크뮬리 공원이 황금빛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해수욕장과 인근 주포 억새밸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광주 등 인접지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 최정일 돌머리 노을정원 팜마켓 추진위원장은 "지역 주요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농가수익창출과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관광지 주변 방치된 땅을 적극 활용해 국화, 억새, 핑크뮬리 등을 다양하게 식재하고 색다른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함평군

해외 농업정보



9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미국의 수확에 대한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연질적색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 거래량 대부분을 마이너스 영토에서 거래된 후 환매수로 인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시세차익거래로 하락 마감했다. 금요일 트럼프 정부는 미국 바이오연료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유 업체들이 2020년에 연료에 추가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불특정하게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또한 E15와 같은 가솔린의 고급 에탄올 혼합물의 판매에 대한 추가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 내수 생산량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시장이 뒷받침되며 7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홍보에서는 업무계획, 분야별 정책, 정책자료, 디지털도서관, 청 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업무계획은 2019, 2018, 2017년도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정책에서는 농촌, 농업, 식량, 국제, 축산, 농생명, 유통, 식품, 방역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분야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귀농귀촌,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 식량분야에서는 쌀 목표가격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 국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말산업육성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개량지원 등
- 정책자료는 등록일자와 주제어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연구원소개,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연구정보에서는 연구보고서, 학술지(농촌경제), 세미나·토론회 자료, 농정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림어업고용동향분석, 농정동향,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관측정보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매월 제공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 임업관측은 밤, 표고버섯, 대추, 떫은감, 산채, 조경수의 단기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발표
 - 농정동향은 KREI 논단,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농정소식을 확인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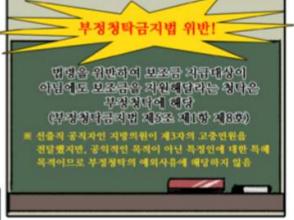


청렴한세상 -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